

즐거운
설날

옛 정취 고스란히… 가족과 마실 나가요

광주 도심 산책

◇푸른길 공원

명절에는 흩어졌던 마음들이 모이고 정이 고인다. 가족들과 짧은 대화에도 마음 한켠이 울려오고 세월의 어깨에 놀린 감정에도 새실이 둇아난다. 가족들과 마음을 나눴다면 설 마실을 나서보자. 가족들과 추억을 만들려면 광주 남구 양림동, 푸른길 공원, 광주 폴리길이 제격이다. 양림동에서는 오웬기념각, 이장우 가옥 등 옛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옛 건물들을 만날 수 있다. 겨울에도 온기를 품고 있는 푸른길 공원에서는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얻을 수 있고, 광주 폴리길에서는 세계 각국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광주 도심에 있는 푸른길 공원은 계절이 머무는 곳이다. 폐선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놓은 이 길에는 단풍, 소나무, 은행, 느티나무 등 수많은 나무들이 계절의 표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 계절에는 낙엽을 떨구고 겨울하게 봄을 준비하는 나무들과 속도를 주구하는 삶에서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옛 기찻길 주변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푸른길 공원은 지난 2008년 광주~여수간 철길의 일부 구간(광주역~효천역)이 폐선됨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한 때 모양의 길이다.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에서부터 서구 진월동 동성중까지 7.9km.

시민들이 즐겨 찾는 가장 아름다운 구간은 산수동 굴다리와 조선대~옛 남광주 역사로 이어지는 푸른길이다. 가을 단풍이 백미지만, 겨울대로 운차가 있다. 눈썰미 있는 사람이라면 동명동 농장다리 근처(문화휴먼시아 아파트 앞 길)에 있는 마을 골목 벽화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쉼터로는 신시와(瓦)가 좋다. 큐레이터 박성현씨 부부가 60년대 한옥에 새음을 불어넣은 문화카페다. 동명동 농장다리에서는 건축가 승효상씨가 설치한 '푸른길 문화센터'도 만날 수 있다. 인근에는 시민들이 만들어놓은 '시민디자인하우스 고래집'도 있다. 남광주 시장 인근 옛 남광주 역사에는 푸른길의 아이콘이 기차가 있다. 이곳에 있는 기차 두량은 현재 도서관과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광주 폴리길

푸른길 공원

옛 기찻길 주변 풍경 만끽

동명동 마을 골목벽화 여행

신시와에서 잠시 '쉼'

광주 폴리길

일상으로 인문학적 공간으로

'유네스코 회장실' 서 출발해

'광주천 독서실' 까지 감상

양림동길

언제나 걸어도 좋은 길 '둘레길'

400살 호랑가시나무 겨울풍경 백미

근대역사문화를 찾아 '이장우 가옥'

◇양림동길

근대 문화유산의 보물창고인 양림동은 가을 날 걷는 게 가장 운치있지만 이즈음엔 또 나름의 매력이 있다.

나들이의 시작은 기독간호대학 양립교회와 마주한 오웬기념각이다. 1904년 건립돼 올해 딱 100살이 된 근대 건물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5분 정도 기독교병원쪽으로 걸어가면 400살 된 호랑가시나무가 반기고 바로 곁에 드라마 '구미호 외전'을 촬영하기도 했던 우월순 사택이 보인다.

사택 뒤편 아트마인 동산을 오르다 보면 작은 문학공원과 화려한 비석 대신 소박한 비문이 적힌 돌조각들이 인상적인 선교사묘원을 만날 수 있다. 또 '양림동의 시인'으로 불리는 디향 김현승 선생의 시비와 그가 사랑했던 무등산이 가장 잘 보이는 호신대 티브리운 앞에서 잠시 쉬어가도 좋다.

수피아여고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근대 건축물이 가장 많은 곳이다. 우월순 선교사 사택 앞에 위치한 커티스메모리얼, 윈스보로우홀 등을 찬찬히 둘러보는 것도 좋다.

사직도서관 아랫길로 들어서면 만나는 기와집 이장우 가옥과 구석구석 골목들에도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양립둘레길'(총 4.5km), 남구청이 만든 '양립동, 광주 근대 역사 문화의 보고'지도가 좋은 길라잡이가 된다.

/운영기자 penfoot@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❶ 을 설날에는 광주 도심을 천천히 걸어 보는 게 어떨까. 근대건축물의 보물창고 양림동에 자리한 이장우 가옥에서 활하게 웃고 있는 고향립씨 기족.

❷ 무등경기장 뒤쪽 천변에 있는 폴리 '광주천 독서실'.

❸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에서부터 서구 진월동 동성중까지 7.9km 구간에 조성된 푸른공원길.